

동티모르 2019: 교착상태의 국내외 정치*

유 민 지**

국문초록

본고는 동티모르의 국내외 정치를 중심으로 동티모르의 2019년을 정리한다. 첫째, 타시마네 프로젝트를 둘러싼 동티모르의 정치를 살펴본다. 이원집정부제를 가지는 동티모르는 대통령의 총리의 리더십이 대립될 때 정치적 불안정이 극대화된다. 최근 동티모르의 정치는 2017년 선거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정부지출이 제한됨에 따라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경기침체를 겪어야만 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리더십의 대립은 특히 타시마네 프로젝트를 두고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동티모르의 정치맥락을 반영하여 2019년 동티모르의 국내정치는 타시마네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동티모르 이원집정부제의 작동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동티모르의 대외정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동티모르 대외정치는 호주와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패권경쟁과 이에 대응하는 동티모르의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호주와 중국은 긴 시간 동티모르와 외교관계를 맺어왔으며, 최근 중국이 동티모르의 타시마네 프로젝트에 일대일로 사업을 접목함에 따라 호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견제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동티모르는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 줄다리기를 하는 동시에 아세안 가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 패권경쟁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모습이다. 인도-퍼시픽 전략 하에서 동티모르의 지정학적 위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티모르를 둘러싼 패권국가의 경쟁과 이를 타계하고자 하는 동티모르의 노력을 대외정책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결론은 요약과 2020년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며 동티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1080989).

**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minji.yoo@jbnu.ac.kr

모르 2019를 마무리 할 것이다.

주제어: 동티모르, 타시 마네 프로젝트, 티모르 해, 석유 의존경제, 목격자 K, 일대일로, 아세안

I. 서론

인도네시아 군도의 동남부 소순다 열도의 동쪽 끝에 위치한 티모르 섬, 이 섬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동티모르는 오랜 시간 외세의 영향을 받아왔다. 1999년 8월 30일 전체 유권자의 95%가 참여하여 78.5%가 독립에 찬성함으로써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 티모르-티무르(Timor-Timur)가 아닌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 결정이 이 섬나라에 곧바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없었다. 친인도네시아 무장 민병대의 무자비한 살상, 약탈, 방화로 80%의 국가기반시설이 파괴되었고, 선거 이후 약 25만 명의 실항민이 발생하는 등 혼란의 시기를 겪어내야만 했다(CAVR 2005). 2006년 동티모르 군(F-FDTL) 내부에서 시작된 지역차별 문제에서 촉발된 분쟁으로 동티모르는 독립 후 가장 큰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이 분쟁은 동티모르인들에게 상흔으로 남았으며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몇 차례의 위기 이후 구스마오(Xanana Gusmão)와 그의 동티모르 국가재건회의당(CNRT, Congresso Nacional de Reconstrução de Timor) 중심으로 권력구조가 재편되면서 동티모르의 정치 상황은 안정되었다. 구스마오의 리더십은 정치뿐 만이 아니라 경제발전계획에서도 빛났다. 특히 그의 경제발전 리더십은 그가 주도하는 국가주도 대형 개발 프로젝트인 타시 마네 프로젝트(Tasi Mane Project)가

2011-2030 전략적발전계획(República Democrática de Timor-Leste 2010)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¹⁾ 티모르 해 해안가를 잇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여 유전개발을 주도하고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티모르에게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동티모르의 일반경제지표들은 타시마네 프로젝트가 왜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작은 신생국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27만 명의 인구를 가지며, PPP기준 1인당 GDP는 1,237달러, 국내총생산(GDP)은 25억 8100만 달러이다(World Bank 2018). 이 중 티모르 해 연안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제외하면 GDP는 16억 달러로 연안의 석유산업이 GDP의 약 40%를 차지한다. 총 수출의 90% 역시 석유이다. 동티모르 GDP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은 정부지출인데 동티모르 정부재정의 90%가 석유기금(Petroleum Fund)에서 충당된다는 사실은 동티모르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석유산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예산안 통과 및 예산 집행률이 동티모르 GDP성장률과 가계소득, 상품 및 서비스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GDP에 정부지출이 막대한 비중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2017-2018년 동티모르의 경기침체가 정부예산안 미승인으로 인한 정부지출 제한이었다는 세계은행의 분석은 이를 뒷받침한다(Martins and Gaspar 2019).²⁾ 한 국가의 경제흐름이 국가의 재정지출에 달려있는데, 이 재정의 90%가 석유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니 타시마네 프로젝트의 석유화학산업 발전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

1) 동티모르는 현재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오에쿠시 특별사회시장경제구역(Zona Especial de Economic Social de Mercado) 및 남부해안가 타시 마네 프로젝트 등 초대형 인프라 개발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2019년 IMF 연례협의단은 석유와 정부지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동티모르에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부문성장과 경제다변화라는 재정과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9).

는 프로젝트로 인식되는 것이 이상할리 만무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2019년의 동티모르는 내부적으로 타시 마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의 주도권 경쟁에 직면하여 있고, 외부적으로는 주요 공여국으로 떠오른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호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축전의 와중에 있다. 타시 마네 프로젝트가 구 스마오의 리더십과 연결되면서 이는 정치적 라이벌 세력의 견제대상이 되었으며, 석유화학산업 뿐 아니라 농업 및 관광업으로 경제를 다변화시켜 경제기반을 튼튼히 해야 함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2017년 선거 이후 2018년, 2020년 두 번의 내각성립 실패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타시 마네 프로젝트는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동티모르의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는 호주와의 해양경계획정, 개발방법, 수익배분, 투자유치 등의 문제를 불러왔다. 또한 이 와중에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동티모르까지 확장됨에 따라, 타시 마네 프로젝트는 인도-퍼시픽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 흐름 속에서 두 강대국-호주와 중국의 경제·외교·군사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본고는 동티모르의 국내외 정치를 중심으로 동티모르의 2019년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타시마네 프로젝트를 둘러싼 동티모르의 정치를 살펴본다.³⁾ 동티모르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의 리더십이 대립될 때 정치적 불안정이 극대화된다. 최근 동티모르의 정치는 2017년 선거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정치적

3) 동티모르 2019 경제전반에 대한 설명은 동티모르의 경제가 국가재정지출과 석유중심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서론의 세 번째 단락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동티모르의 2019년을 정리하는 논문인 만큼, 해당국가의 2019 경제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나 민간부문의 성장이 미약하고 공공재정 지출이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티모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국내외정치가 국가경제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필자는 분석하기 때문이다. 동티모르와 같은 국가의 경제는 비공식경제 즉, 자금자족과 교환의 경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는 인류학적 접근방법을 요구하므로 추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동티모르 2019를 국내외 정치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불안정으로 정부지출이 제한됨에 따라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경기침체를 겪어야만 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리더십의 대립은 특히 타시마네 프로젝트를 두고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동티모르의 정치맥락을 반영하여 2019년 동티모르의 국내정치를 타시마네 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동티모르 이원집정부제의 작동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동티모르의 대외정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동티모르 대외정치는 호주와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패권경쟁과 이에 대응하는 동티모르의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호주와 중국은 긴 시간 동티모르와 외교관계를 맺어왔으며, 최근 중국이 동티모르의 타시마네 프로젝트에 일대일로 사업을 접목함에 따라 호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견제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동티모르는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 줄다리기를 하는 동시에 아세안 가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 패권경쟁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모습이다. 인도-퍼시픽 전략 하에서 동티모르의 지정학적 위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티모르를 둘러싼 패권국가의 경쟁과 이를 타계하고자 하는 동티모르의 노력을 대외정책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요약과 더불어 2020년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며 동티모르의 2019년을 정리할 것이다.

II. 동티모르 2019 국내정치와 타시마네 프로젝트

1. 이원집정부제와 동티모르 2019 국내정치

동티모르는 이원집정부제를 취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에서 선임된 총리로 구성되는 혼합형 정부형태인 이원집정부제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는 장점

을 지닌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의 정파가 일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대통령제적 성격을 갖느냐 내각제적 성격을 갖느냐가 결정됨에 따라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원집정부제를 가진 동티모르는 대통령과 의회다수당의 불일치로 국정운영의 혼돈이 2019년까지 이어졌다.

이 정치적 불안은 2017년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3월과 7월에 각각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그 해는 선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당(FRETILIN, Frente Revolucionária de Timor-Leste Independente) 소속 프란시스코 구테레스 루 올로(Francisco Guterres Lu-Olo)는 세 번의 대권도전 끝에 57.1%의 득표율로 제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로부터 약 넉 달 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의 정당 FRETILIN은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얻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총 재적의원 수 65석에서 23석을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였지만, 과반수에는 크게 못 미친 의석확보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연정을 통한 안정적인 과반의석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FRETILIN이 국가 삼권의 수장(대통령, 총리, 국회의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연정이 와해되고 FRETILIN 정부는 소수여당으로 국정운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Leach 2017; Murdoch 2017).

소수여당으로 시작한 FRETILIN 정부의 국정운영은 가시밭길과 다를 것이 없었다. 2018년 국정운영을 위한 논의가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구테레스 대통령은 이 혼돈의 정국을 타계하고자 마지막 수단으로 2018년 1월 26일 국회 해산을 명령하였다. 이후 2월 7일에 대통령은 5월 12일 조기총선 실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Guterres 2018). 그러나 2018년 조기 총선 역시 FRETILIN이 승리하지 못함에 따라 대통령과 내각의 불협화음이 지속되었다. 이는 특히 대통령의

내각인사 임명 거부 사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야당이 된 FRETILIN의 프란시스코 구테레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12명이 부패사건과 연루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임명을 거부한 사건으로 인하여 부처 장관 임명이 지체되었다. 이로 인해 당연히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다. 진보를위한변화동맹(AMP, Aliansa Mudansas ba Progresu) 정부가 2019년 6월까지 2019년 1년 재정의 31퍼센트 밖에 집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Independente 2019d).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군소정당 중 하나인 동티모르민족통일증진을위한청년당(KHUNTO, Kmanek Haburas Unidade Nasional Timor Oan)의 고문인 조제 나이모리 부카(Jose Naimori Bukar)는 총리 타우르 마탄 루악(Taur Matan Ruak)이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대통령과 대화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루악 총리 역시 이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재무부, 석유자원부, 국가관리부, 관광통상산업부, 전략투자부, 보건부, 내무부 등 총 아홉 개 주요 부처 장관직이 공석인 채로 2019년을 보내야만 했다 (AP News 2018; Independente 2019e). 2020년 1월, 구스마오가 수장으로 있는 CNRT가 2020년 예산안 표결에 기권하면서 AMP연정이 사실상 무너졌다. 2020년 2월 연합정당의 주축인 CNRT의 수장 구스마오가 총리 루악의 당(PLP, People's Liberation Party)과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루악은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공식 발표하였으나 곧 이를 거두고 총리직을 계속 수행중이다.

2. 타시마네 프로젝트와 이원집정부제의 그늘

이러한 대통령과 의회의 마찰은 타시 마네 프로젝트 관련 논의에

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대통령과 FRETILIN은 구스마오가 이끄는 타시 마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견제해왔다. 타시 마네 프로젝트란 국가주도의 개발전략사업으로 티모르해 해안가 도시들을 연결하는 유전개발사업이다. 동티모르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티모르 해와 그 해안가를 연결하는 거대한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동티모르 남부해안의 3개 행정구역 - 수아이(Suai), 마누파히(Manufahi), 비케케(Viqueque) -에 각각 1) 수아이 공급 베이스(the Suai Supply Base) 클러스터 2) 베타노 정유 화학단지(the Betano Refinery and Petrochemical Industry) 클러스터 3) 비에소 LNG 플랜트(Beaço LNG-Plant) 클러스터를 건설하고, 이를 고속도로로 연결하겠다는 이 대형 개발프로젝트는 막대한 자본의 투자를 요구한다.

<그림 1> 타시 마네(Tasi Mane) 프로젝트



출처: <https://www.laohamutuk.org/Oil/Sunrise/2011/TasiMane900.jpg>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구스마오가 담당하고 있다. 구스마오는 현 대통령 구테레스 소속 정당

FRETILIN와 대립하고 있는데, 현 정부를 이끄는 연합정당(AMP)의 핵심인 CNRT의 수장으로,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무장투쟁전선을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호주와의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동티모르 측 대표로 활동했으며, 타시 마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의 특성상 재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이에 동티모르 정부는 국가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있는 석유기금법을 개정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구테레스는 막대한 석유기금이 성과가 불투명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됨을 우려하여 의회에서 통과된 석유기금법 개정안을 2018년 12월 인준 거부하였다. 이듬해 3월, 야당인 FRETILIN은 고등법원에 개정된 석유기금법이 위헌임을 제소하였고 2019년 9월 고등법원은 이를 위헌이라 판결함(Independente 2019f)으로써 재원 마련을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타시 마네 프로젝트에 대한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은 2019년 예산안 논쟁에서도 드러났다. 2019년 1월, 대통령은 민생 관련 분야가 아닌 개발프로젝트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배정된 것을 반대하여 의회에서 의결된 정부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Independente 2019b). 2019년 예산안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음을 감안할 때, 재정의 90% 이상이 석유기금으로부터 충당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률상 정해진 비율 이상을 국가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예산안은 당연히 석유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Independente 2019c).⁴⁾ 의회의장인 아라오 노에 다

4) 동티모르의 석유기금은 2005년 8월 3일 석유기금법(Petroleum Fund Law)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동티모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석유 관련 수입이 이 기금에 저축된다. 석유기금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수입 추정치(Estimated Sustainable Income)를 제시하여야 하며 매년 추정치만큼 국가 재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추정치는 총 펀드의 3% 수준이지만, 2009년부터 이 추정치 이상으로 기금이 인출되어 펀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코스타 아마랄(Arão Noé da Costa Amaral)은 동티모르 2011-2030 전략적발전계획이 집중하고 있는 교육, 보건, 농업보다 석유화학산업이 더 즉각적인 국가 세입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였다 (Independente 2019a). 이는 결과적으로 구스마오를 지지하고, 대통령 구테레스를 비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와 같은 예산 논쟁은 타시 마네 프로젝트로 배정되었던 6억 5천만 달러를 삭감한 개정안을 2019년 2월 대통령이 인가함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

2020년 예산에 대한 논의는 2019년 여름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종결되지 못하였다. AMP 연정이 무너지고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2020년 정부 프로그램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2019년 예산을 기초로 책정되는 예산을 매달 배정받는 방식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장 먼저 위기가 닥친 분야는 보건의료였다. 약품수입을 위한 입찰을 시작하지 못한 보건당국은 기본약품의 제고가 충분치 않은 상황을 호소하며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Tatoli 2020).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예산의 제한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추후에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예산안 부결로 연정이 와해되면서 동티모르는 2017년 이래 두 번째로 정부 구성의 실패를 경험하였다. CNRT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연합정부에는 구 정치인, 구스마오 뿐 만이 아니라 라모스-오르타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Aljazeera 2020; Hutt 2020; Leach 2020).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구세대들의 복귀 및 대결의 부활은 동티모르의 정치를 파벌과 인물 중심의 구도로 재구성하게

제기되고 있다(Martins and Gaspar 2019).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구조의 다변화,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의 개발, 일자리 창출 등이 도외시되고, 타시 마네 프로젝트의 일환인 그레이터 선라이즈(Greater Sunrise) 광구개발권 매입에 국가 예산의 30%가 배정됨에 따라 예산의 불균형의 문제도 제기되었다(Independente 2019b; Presidência da República 2019).

될 것이다. 이는 누가 경제정책을 주도하여 개발이권을 확보하는가의 문제로 연결이 될 것이며, 이를 놓고 치열한 각축이 재연되면서 불안정한 정국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정부의 주도로 구스마오가 이끌고 있는 타시 마네 프로젝트가 다시 동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FRETILIN이 단일 정당으로서는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LP도 야당의 노선을 걷게 된 상황에서 타시 마네 프로젝트가 야당의 반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구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동티모르 국민들은 여전히 동티모르를 자주독립국가로 이끈 구 정치인들의 저항운동과 희생이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성세대 정치인들과 연결된 연고주의, 족벌주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감정도 크다. 2006년 구스마오 정부가 저항운동에 참여했던 참전용사 연금법을 제정하고, 이들이 각종 정부계약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Kingsbury 2018:80; World Bank 2008), 군사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세대 정치인들의 지지기반은 여전히 강력하다. 구스마오나 알카티리를 비판하며 등장한 PLP, 기성정치인인 '75세대(포르투갈 식민지 시절, 가톨릭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로 74-75년 동티모르 독립과 정당정치를 이끈 이들)'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신세대(the Geração Foun, 인도네시아 점령 시절에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로 비밀 학생조직 운동을 이끌었던 이들)'를 대표하던 민주당(PD, Partido Democrático), 청년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등장한 KHUNTO 모두 75세대의 후견이나 연정 없이 성장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성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특정 세력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Roll 2018; Shoemsmith 2003)하기에 파퓰리즘을 포기할 수 없는 형국에서 타시

마네 프로젝트의 주도권과 이권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권 상황이 동티모르 향후의 정국을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Ⅲ. 동티모르 2019 대외관계

1. 동티모르를 둘러싼 호주와 중국의 경쟁

타시 마네 프로젝트는 동티모르 국내정치뿐만이 아니라 국제관계, 특히 티모르 해의 천연자원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변 강대국 - 중국과 호주 -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호주는 호주와 티모르섬 사이 티모르 해 대륙붕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였다. 1972년 인도네시아 대륙붕 경계조약 (Australia-Indonesia Seabed Boundary Treaty)을 시작으로 2018년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동티모르와 호주의 사이의 티모르 해를 양국 간 공동개발구역으로 남겨 놓음으로써 이익을 취해왔다. 개발과 채굴 역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호주였기에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보다 공동개발구역으로 남기는 것이 호주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호주의 선택은 동티모르가 독립국 지위를 갖게 되면서 양국의 갈등요소로 작용했다. 천연자원으로 국가의 미래를 꿈꾸던 신흥국 동티모르의 정치인과 국민에게 호주의 행동은 주권에 결부된 문제로 이해되었다. 2018년 호주와 동티모르가 해양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던 중 드러난 호주의 비도덕적행위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새 광구인 그레이터 선라이즈에 대한 개발 투자를 포기하는 회사들이 생겨남에 따라 호주와 동티모르 간의 티모르 해 분쟁은 2019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두 국가의 갈등을 기회로 여기고 동티모르에 러브콜을 보내는 국가가 등장할 하는데, 바로 중국이다. 2017년 동티모르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D)의 회원국이 되면서 본격적인 일대일로 사업의 대상국이 되었고, 타시마네 프로젝트에 중국의 자본이 투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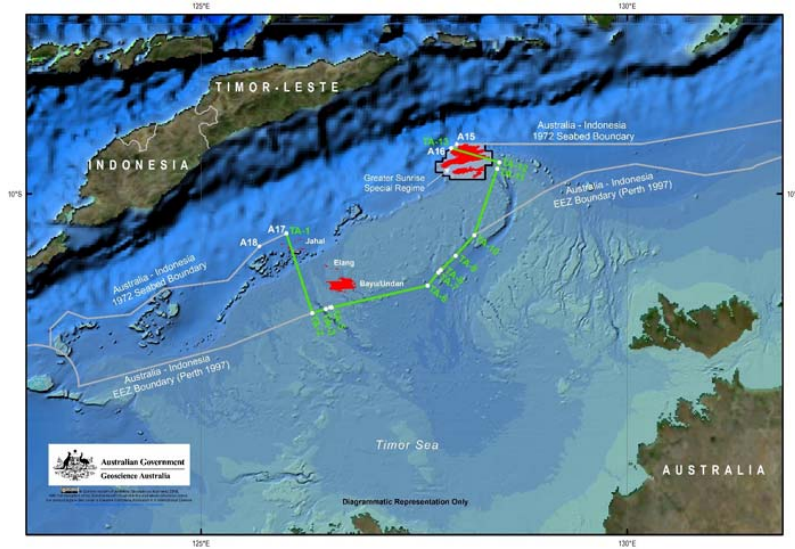
2019년에는 그레이터선라이즈 광구 개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내비치며 동티모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장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동티모르와 호주간 그레이터선라이즈 광구 개발의 수익배분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호주의 견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군도의 교두보에 위치한 동티모르에 중국의 일대일로가 도달하면서, 동티모르 정부는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티모르 해 개발을 두고 두 국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019년 동티모르와 호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 긴 역사적 배경이 필요하나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 - 동티모르-호주의 해양경계선확정 - 이 최근의 두 국가의 사이를 가장 압축적 설명하는 배경이 된다. 동티모르와 호주는 2018년 3월 6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국제법에 근거하여 해양경계선을 확정하였다.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이 석유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채굴 중인 공동석유개발지역 -바유-운단(Bayu-Undan)- 의 천연가스가 2020년대 초반이면 고갈되고 2025년이면 펀드기금이 소진될 것(Strating 2017a)이라는 예측은 동티모르에게 큰 위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티모르의 관점에서 보면 개발예정인 그레이터선라이즈 광구(<그림 2> A16 빗금친 영역)의 개발권을 누가 더 많이 갖게 되느냐는 국가의 생존뿐만 아니라 타시 마네 프로젝트를 주도한 구스마오의 정치생명의 지속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미화 500억 달러 매장량의 광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산업 부흥시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동티모르 정부는 2011-2030 전략적발전계획이 발표된 이후 2006년에 체결한 해양조정조약(CMATs, Treaty on Certain Maritime Arrangements in the Timor Se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동티모르는 호주가 티모르 해의 해양경계선 설정을 의도적으로 유보하고 있으며 이는 티모르 해 대륙붕의 천연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약이라 판단했다. 결국 티모르 해 분쟁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로 넘겨졌으며, 2018년 3월 6일 재판소의 중재로 동티모르와 호주는 CMATS를 파기하고 유엔해양법에 근거한 중간선(the median line)으로 해양경계선획정 조약을 맺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8). 새로운 경계선 획정으로 공동석유개발지역이 모두 동티모르의 영해가 되어 이 해역에서 발생하는 원유생산의 수익은 동티모르로, 그레이터선라이즈의 많은 부분이 동티모르의 영해로 귀속됨에 따라 원유생산 수익은 동티모르와 호주가 80/20또는 70/30으로 나눠 갖게 되면서 동티모르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8). <그림 2>는 2018년 확정된 해양경계선으로 TA-1부터 TA-13까지가 새로 그려진 경계선이다.

티모르 해에 대한 개발권을 둘러싼 분쟁이 해양경계선획정으로 종료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호주정부가 동티모르 정부청사를 도청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두 국가의 또 다른 신경전이 시작되었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고 해양경계선획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던 중, 2004년 호주가 CMATS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티모르 정부청사에 도청장치를 설치, 호주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는 당시 호주 비밀정보부(ASIS)에 근무했던 증인 K리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 2013년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호주는 국제사회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으며, 결과적으로 동티모르에 유리한 해양경계선획정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2018 동티모르-호주 해양경계선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8년 해양경계선획정 조약이 맺어진 이후, 호주 연방검찰은 증인 K와 그의 변호사 버나드 코래어리(Bernard Collaery)를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여 호주 국가기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2019년 8월 호주 수도권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⁵⁾

이 사건으로 인해 호주는 동티모르 시민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지금까지 동티모르에는 호주가 동티모르의 천연자원을 약탈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팽배하였음은 물론, 2018년 3월 해양경계선

5) 이후 증인 K는 유죄인정 의사를 내비쳤으나 그의 변호사 코래어리는 계속 법정다툼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The Guardian 2019). 구스마오는 공개재판의 경우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며(ABC News 2019a)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라모스 호로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빠른 시일내에 철회하기를 촉구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SBS News 2019). 실제 이들은 2019년 11월 진술서를 제출하여 코래어리 변호인 측을 지원하고 있다(ABC News 2019b).

획정 조약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체결된 이후 호주의회의 비준이 될 때까지 기간 동안 기존의 경계선에 의거 호주측이 획득한 수익금 약 6천만 달러에 대한 반환 여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증인 K와 코래어리에 대한 호주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유죄판결은 이러한 대중의 시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티모르 시민 사회단체인 티모르해 점거반대운동(MKOTT, the movement against the occupation of the Timor Sea)은 증인 K와 코래어리에 대한 기소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 비판하고, 상업적 이익을 위한 호주 정부의 행동이 국제법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Greenleft 2018; Massola 2019). 이들은 또한 2019년 8월 말, 독립결정 국민투표의 20주년을 기념하고자 방문하는 모리슨 총리에 항의하는 의미로 “동티모르의 만세! 버나드 코래어리의 만세! 증인 K의 만세!(Viva Timor Leste! Viva Bernard Collaery! Viva Witness K!)”라는 구호를 외치며 수도 달리의 거리를 행진하고 이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Massola 2019). 이렇듯 동티모르와 호주의 신경전은 티모르 해를 둘러싼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서먹해진 동티모르와의 관계에서 호주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동티모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이다. 동티모르에도 중국의 일대일로가 도착하였음은 물론이고 해양경계선확정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그레이터선라이즈 광구 개발에 중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동티모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3세기 중국 송나라 시절 백단향 교역에서 찾을 수 있을 만큼 동티모르와 중국의 역사는 깊다(Gunn 2010:56). 중국은 1975년 FRETILIN 단독 정부의 독립선언을 알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였으며⁶⁾,

6) 중국은 동티모르의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독립의지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1976년부터 1978년 사이에, 프레틸린의 당원들이 인도네시아 점령군에 대한 무력항쟁을

2000년 동티모르에 중국 대표부를 설치하고 2002년 동티모르가 국제사회에서 독립국 지위를 얻고 난 후 가장 먼저 동티모르와 양자 외교관계를 성립한 국가이다. 최근 들어서는 동티모르와 중국의 관계가 더욱 빈번히 미디어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동티모르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D)의 회원국이 되면서 동티모르의 인프라 건설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찌감치 중국은 동티모르 대통령 관저, 외무성, 국방성과 군사령부 건물과 같이 국가권력의 상징적인 건물을 무상으로 건설·제공함으로써 그 존재를 과시해왔는데, 동티모르가 일대일로 사업 대상이 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었다. 중국은 동티모르 수도 딜리 근교에 미화 4900만 달러의 대규모 공사인 타이바 베이 항구(Tibar Bay port)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2019년 7월 주 동티모르 중국 대사가 참여한 기공식을 열었다. 이 항구는 매년 750,000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동티모르의 주요 물류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로 편입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은 동티모르가 국가 미래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타시 마네 프로젝트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타시 마네 프로젝트 중, 수아이에서 비에소까지 156km 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인 수아이(Suai)-파투차이(Fatucai) 구간을 중국 건설사 코백(China Overseas Engineering Group Co.)과 중국철도제일그룹(China Railway First Group Co.)이 합작 투자(COVECT-CRFG)하여 2018년 11월 완공하였고, 2019년 초반에는 중국 기업(Chin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과 국영석유회사 티모르 갱이 비에소 항구 시설 건설 관련 9억 43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티모르

위해 중국에 8,000명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중국에 요청했지만 인도네시아와 호주 해군의 저지로 무기가 전달되지 못한 적도 있다(Soriano 2019).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주 동티모르 중국 대사, 시아오 지안구오(Xiao Jianguo)는 고속도로 완공식에서 “하나의 네트워크, 하나의 길, 하나의 포트(one network, one road, one port)”(Tobin 2019; Wei 2019)로 인프라건설 사업을 묘사한 것은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임을 알 수 있게 한다. 2019년 4월 구스마오는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the 2nd Belt and Road Forum)에 참석하여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이 동티모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의 경제사회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발언하기도 하였다(Jianguo 2019).

동티모르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티모르가 몇몇의 일대일로 대상 국가들이 처해있는 것과 같은 채무함정에 빠졌다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스리랑카와 라오스를 빚대어 이러한 중국의 대동티모르 일대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동티모르는 중국의 관계를 이용하여 중국과의 무역, 영토, 군사 등의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 예를 들면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에 동티모르가 전략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는 2019년 6월 국영석유회사 티모르 갭이 중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미화 159억 달러를 차용할 예정이라는 호주 가디언의 보도에 대한 동티모르 정부의 대응에서 나타난다. 동티모르 국영석유회사인 티모르 갭(Timor Gap)은 이에 대한 호주 가디언 발 보도가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동티모르의 전 총리이며 대통령이었던 두 상징적인 정치인 라모스 호르타와 구스마오 역시 동티모르는 다양한 협력 투자자를 찾는 중이며 호주,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의 국가의 협력을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하였다(Davidson 2019). 동일 매체는 홍콩 기반의 중국 전문가 라이언 마누엘(Ryan Manuel)의 말을 인용하여 동티모르의 이와 같은 대응은 남태평양에

대한 중국세력 강화를 견제하는 주변국들에게 우리에게 투자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게 기회가 넘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을 연결하는 동티모르의 지정학적 위치가 주변국들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동티모르 정부가 인지하고 있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례로, 2019년 8월 16일 중국이 동티모르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군 보급물자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자(Permanent Secretariat of Forum for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Portuguese-speaking Countries [Macao] 2019), 이에 대응이라도 하듯 호주 모리슨 총리는 2019년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동티모르의 국민 투표 20주년을 기념행사에 줄리 비숍(Julie Bishop) 외무장관과 함께 참석하여 동티모르 해군에 대한 지원을 공언하였다. 호주는 동티모르 해군항의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일괄 제공할 뿐만 아니라 3억 달러 규모의 퍼시픽 해양 안보프로그램 일환으로 2023년까지 두 척의 경비선을 동티모르 해군기지가 있는 헤라에 이송해 줄 것을 약속했다(de Haan 2019). 호주의 동티모르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중국의 군사적 지원이 호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으며, 동티모르는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동티모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역내 가장 강력한 두 국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아세안 가입을 위한 동티모르의 노력

2019년은 동티모르가 아세안에 가입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인 해였다. 호주와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 있는 동티모르라는 작

은 국가의 입장에서 아세안 가입은 강대국 패권경쟁에서 벗어나 경제구조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다. 동티모르 외교협력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는 2019년 3월 자발적으로 동티모르-아세안동원프로그램(the Timor-Leste ASEAN Mobilization Program)을 출범시켰다. 이는 아세안공동체청사진2025(the ASEAN Community Blueprint 2025)와 연계된 동티모르 정부의 아세안 가입 실행계획이다. 이 실행계획은 동티모르 정부 스스로 아세안 표준에 맞는 법률, 경제 및 재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아세안 회원국이 되기 위한 동티모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드러난다. 2019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동티모르 정부는 공무원 20명을 자카르타에 위치한 아세안 사무국으로 기술연수를 보내는 등 아세안 회원국이 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펼쳤다(Hooi 2019). 또한 2019년 9월에는 동티모르에 대한 자격심사를 위한 아세안의 평가단 방문을 앞두고, 동티모르 외교협력장관 디오니시오(Dr. Dionisio da Costa Babo Soares)가 아세안 사무국 및 10개 아세안 회원국 모두를 방문하여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동티모르는 2002년 독립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부터 아세안 가입에 대한 희망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동티모르는 2005년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에 가입하였고, 2007년에는 아세안 우호협력조약(ASEAN Treaty on Amity and Cooperation)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이던 2011년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지지에 힘입어 아세안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동티모르는 모든 ARF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2011, 2017, 2019년)에 걸쳐 ARF 워크숍 개최국으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세안 헌장 6조에 따른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역량과 의향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⁷⁾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이 있어야만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동티모르의 아세안 공동체 입성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 방콕 포스트의 총기 타본(Chongkittavorn 2019)은 동티모르의 낮은 경제성장, 저숙련 노동인구, 불충분한 정부역량 및 미약한 법·제도 등의 요인이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싱가포르의 동티모르가 회원국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가이며,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으로 인하여 역내 국가 간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호주 라 트로브 대학(La Trobe University)의 교수인 스트레이팅(Strating 2017b)은 동티모르의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가 동티모르의 회원 가입을 유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중국, 호주,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의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동티모르를 통하여 아세안으로 미칠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최근 들어 깊어지는 동티모르와 중국 간의 관계는 남중국해문제와 같이 중국과 외교안보 현안이 있는 아세안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동티모르의 민주주의 발전이 아세안의 가입이 유예되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Talesco 2016). 탈레스코(Talesco)에 따르면, 동티모르의 경제 문제는 핑계일 뿐이고 싱가포르 및 라오스와 같이 사실상 권위주의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동티모르를 마땅치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세안에

7) 동티모르는 아세안 사무국과 역내 국가와의 관계 뿐 아니라,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Community of Portuguese Language Countries)의 회원국으로 2014년 제 10회 CPLP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2016년 CPLP 글로벌 정상 포럼, 기니비사우에 선거 프로세스 기술 지원을 하는 등 회원국으로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아세안 역내에서도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다(Government of Timor Leste 2014, 2018). 이는 아세안과 포르투갈어 사용국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이는 노력이기도 하였다.

는 소위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공존하는 체제가 있고, 독재성향이 강한 권위주의 정부도 존재하는 등 다양한 정치체제가 존재하고 있다. 반면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한 저항의 역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 위에 서있기에 동티모르가 아세안의 인권문제를 아세안의 주권불가침의 원칙에 따라 침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세안 회원국보다 높은 동티모르의 자유지수와 민주주의⁸⁾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노벨 평화상의 공동수상자인 라모스 호로타는 로힝자 문제를 ‘학살과 다름없다(nothing less than genocide)’라고 언급하였으며(The Guardian 2015), 구스마오는 2014년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서 아세안은 인간을 존엄가치를 지키는 보편적 가치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Gusmão 2014).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1990년대 아세안에 가입할 때도 이들의 낮은 경제성장이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으나 그렇다고 가입이 유예된 적은 없다는 사실은 이 같은 설명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한다(Seixas et al. 2019: 162).

이제 동티모르가 아세안 공동체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지 2020 아세안 정상회의를 기다려야 한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이 소국을 둘러싼 호주와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8) 동티모르는 프리덤하우스가 2019년 발표한 세계자유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자유국가로 분류된다.

<https://freedomhouse.org/country/timor-leste/freedom-world/2019>

V. 결론

2019년의 동티모르는 2017년부터 이어져오는 불안정한 정국의 연장선에 있었다. 2017년 이래로 CNRT와 FREILIN의 관계가 다시 대립으로 전환된 이후, 동티모르는 FRETILIN당 소속의 구테레스 대통령과 CNRT가 이끄는 AMP정부의 구도로 이원집정부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2월 AMP연정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내각 수립이 선언된 상황은 2019년의 혼돈의 정도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본고는 이 불안한 정국의 핵심을 타시 마네 프로젝트에서 찾았다.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CNRT의 구스마오와 이를 견제하는 FRETILIN당의 부조화가 이 불안한 정국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산업기반이 미비하고 석유의존도가 높은 경제라는 동티모르 현실에서 석유화학산업이 중심이 되는 타시 마네 프로젝트는 동티모르의 미래를 담보하여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에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구스마오에 의해 국가의 미래가 결정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물론 구스마오의 정치생명에도 직결된다. 이를 견제하는 FRETILIN당은 성공이 확실치 않은 타시 마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막대한 석유기금이 민생이나 국가경제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여타 기회들을 정부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킨다고 주장하며 견제하고 있다. FRETILIN의 견제는 대통령의 예산안 미승인, 주요내각 인사 승인 보류 등으로 나타나 동티모르는 사실상 강통 내각으로 2019 국정을 운영하였다.

타시 마네 프로젝트는 국내 정치 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8년 호주와의 영해분쟁이 종결되는 듯하였으나, 동티모르에 유리한 해안경계선확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호주 도청사건의 내부 고발자와 그의 변호사에 대해 호주 수도권 대법원이

2019년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두 국가의 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무엇보다 새로운 광구인 그레이터선라이즈의 개발권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티모르 해 대륙붕은 아직도 두 국가 관계에서 첨예한 지점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동티모르와 호주의 서먹한 관계를 틈 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동티모르로 확장하면서 주요 공여국으로 등장하였다. 타시 마네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8년 수아이(Suai)-파투차이(Fatucai) 구간을 중국 건설사가 완공하였고, 현재는 중국 기업과 동티모르 국영석유회사 티모르 갱이 비에소 항구 시설 건설하며 동티모르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티모르 해군에 지원을 약속하면서 호주를 자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동티모르는 이와 같은 국제관계 지형에서 호주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퍼시픽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 흐름에서 동티모르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군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면서 높은 자유지수와 민주주의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분쟁의 중심국인 중국 역시 관심을 기울이는 국가가 되었다. 동티모르는 이런 입지적 조건을 활용하여 타시 마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 강대국의 영향권에 있다는 사실은 아세안이 동티모르의 가입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하나의 이유로 분석되기도 한다.

2020년의 동티모르는 구스마오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로 정치적 혼란이 종결되고 타시 마네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는 동시에 여전히 일당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FRETILIN과 야당으로 돌아선 PLP가 있기에 2020년의 정국 역시 예측하기 쉽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자극하는 연설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

시즌이 되면 동티모르 보통 사람들 모두가 2006-2007년 과 같은 소요사태가 일어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정치지도자들도 공감하고 염려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살얼음을 걷고 있는 듯하지만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동티모르의 정치지형이 흥미로운 지점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여성과 청년의 대중정치에 참여는 동티모르 정치의 성숙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라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KHUNTO라는 ‘거리 청년들’의 정당이 국회에 입성한 것을 괄목할만한 변화이지만, 이들이 기득권의 핵심인 구스마오의 CNRT와 연합하였다는 사실은 이들의 목소리가 중앙정치에서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구스마오의 성장 중심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와 민생안정(교육, 보건, 전기 및 식수공급)이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년세대의 정치소외가 계속되고 초대형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보상 문제 등, 부의 불균형이 심화됨이 그 과정에서 목격된다면, 동티모르에 만연한 반부패 정서와 ‘높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사람들을 다시 거리로 모이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동티모르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개발의 이익이 국가 전반에 확대될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여 주권 성숙의 단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BC News. 2019a. “Xanana Gusmao Offers to Give Evidence in Witness K Trial.” <https://www.abc.net.au/news/2019-08-26/xanana-gusmao-offers-to-give-evidence-in-witness-k-trial/11436286> August 26(검색일: 2020.04.01)
- _____. 2019b. “East Timorese Leaders to Testify in Witness K Trial.” <https://www.abc.net.au/news/2019-11-27/east-timorese-leaders-to-testify-in-witness-k-trial/11741930> November 27 (검색일: 2020.04.01)
- Aljazeera. 2020. “East Timor PM Taur Matan Ruak Resigns as Coalition Collapses”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2/east-timor-pm-taur-matan-ruak-resigns-coalition-collapses-200225034607150.html>. February 25(검색일: 2020.04.23)
- AP News. 2018. “New East Timor Government Marred by Corruption Allegations”. <https://apnews.com/344126414e0c47ef80df4aa794252a7d/New-East-Timor-government-marred-by-corruption-allegations>. July 22(검색일: 2019.12.19)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8. “Australia’s Maritime Arrangements with Timor-Leste.” <https://dfat.gov.au/geo/timor-leste/Pages/australias-maritime-arrangements-with-timor-leste.aspx>(검색일: 2019.12.19)
- CAVR. 2005. *Chega! : the Final Report of the Timor-Leste Commission for Reception, Truth and Reconciliation(CAVR)*. Dili: CAVR.
- Chongkittavorn, Kavi. 2019. “Admit Timor Leste to Bloc Now or

- Never.” <https://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1681204/admit-timor-leste-to-bloc-now-or-never>. May 21 (검색일: 2020.01.09)
- Davidson, Helen. 2019. “Timor-Leste Rejects Report It Is Taking \$16bn Loan from China’s Exim Bank for Gas Projec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jun/26/timor-leste-rejects-report-it-is-taking-16bn-loan-from-chinas-exim-bank-for-gas-project>. June 26 (검색일: 2020.12.19)
- de Haan, Jarryd. 2019. “Chinese and Australian Interests in Timor-Leste: At Odds or Mutually Beneficial.” Nedlands: FutureDirections. International.<http://www.futuredirections.org.au/publication/chinese-and-australian-interests-in-timor-leste-at-odds-or-mutually-beneficial/>. November 28 (검색일: 2019.12.19)
- Freedom House. 2019. “Freedom in the World 2019 Timor-Leste”. <https://freedomhouse.org/country/timor-leste/freedom-world/2019>(검색일: 2020. 01. 11)
- Gunn, C. Geoffrey. 2010. *Historical Dictionary of East Timor*. Lanham, Md.: Scarecrow Press.
- Government of Timor-Leste. 2014. “Mission of Support to the Electoral Process in Guinea-Bissau Completes its First Phase.” <http://timor-leste.gov.tl/?p=9743&lang=en>. February 21 (검색일. 2020.01.09)
- _____. 2018. “Timor-Leste Support Mission to the Electoral Process in Guinea-Bissau Begins Phase.” <http://timor-leste.gov.tl/?p=20478&n=1&lang=en>. September 18 (검색일. 2020.01.09)

- Greenleft. 2018. "Timorese Protest Australia'S Prosecution Of 'Witness K' And Lawyer." <https://www.greenleft.org.au/content/timorese-protest-australias-prosecution-witness-k-and-lawyer>. July 20(검색일: 2020.04.23)
- Gusmão, Kay Rala Xanana. 2014. "Speech by His Excelency the Prime Minister Kay Rala Xanana Gusmão on the Occasion of the VII Bali Democracy Forum 『Evolving Regional Democratic Architecture』." <http://timor-leste.gov.tl/wp-content/uploads/2014/10/VII-BALI-DEMOCRACY-FORUM-10.10.14.pdf>. October 10(검색일: 2020.01.19)
- Guterres, Lú Olo Francisco. 2018. "Message By H. E.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Dr. Francisco Guterres Lú Olo on Political Situation in Timor-Leste." <http://presidenciarepublica.tl/2018/01/message-h-e-president-r-epublic/?lang=en>. January 26(검색일: 2020.01.02.)
- Hooi, Khoo Ying. 2019. "What will It Take to Admit Timor-Leste into ASEAN?" <https://thediplomat.com/2019/08/what-will-it-take-to-admit-timor-leste-into-asean/>. August 1(검색일: 2020.01.09.)
- Hutt, David. 2020. "Don'T Be Too Pessimistic about Timor-Leste New Political Instability." <https://thediplomat.com/2020/02/dont-be-too-pessimistic-about-timor-lestes-new-political-instability/>. February 27(검색일: 2020.04.01.)
- Independente. 2019a. "Noe Pushes Oil and Gas Development Over Agriculture." <https://www.independente.tl/en/economy/noe-pushes-oil-and-gas-development-over-agriculture>. February 7(검색일:2019.01.02.)

- _____. 2019b. “Government’s \$1.4bn 2019 Budget Passed by President.” <https://www.independente.tl/en/national/government-s-1-4bn-2019-budget-passed-by-president>. February 11(검색일: 2019. 01.02)
- _____. 2019c. “President Speaks Out Against Budget and Wars of Near Stagnant National Economy.” <https://www.independente.tl/en/economy/president-speaks-out-against-budget-and-warns-of-near-stagnant-national-economy?tmpl=component&print=1>. February 14(검색일: 2020. 04.01)
- _____. 2019d. “Naimori Calls for Fretilin Support to Lobby President on Cabinet Uncertainty.” <https://www.independente.tl/en/national/naimori-calls-for-fretilin-support-to-lobby-president-on-cabinet-uncertainty>. June 26(검색일: 2020.04.01.)
- _____. 2019e. “CNRT will Talk to Fretilin When Cabinet Stand-off Ends.” <https://www.independente.tl/en/national/cnrt-will-talk-to-fretilin-when-cabinet-stand-off-ends>. July 9(검색일: 2020.01.09)
- _____. 2019f. “High Court Rules Parliament’s Proposed Changes to Nation’s Petroleum Fund and Activities Laws Unconstitutional.” <https://www.independente.tl/en/national/high-court-rules-parliament-s-proposed-changes-to-nation-s-petroleum-fund-and-activities-laws-unconstitutional>. September 4(검색일: 2020.01.09)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9.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19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IMF Country Report No. 19/12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19/05/07/De>

- mocratic-Republic-of-Timor-Leste-2019-Article-IV-Consultati
on-Press-Release-Staff-Report-46874. May 7(검색일: 2020.
05.09)
- Jianguo, Xiao. 2019. "Remarks of Ambassador Xiao Jianguo on the
Launching Ceremony of the Quarry Blasting for the Tibar
Bay Port Project." [http://tl.chineseembassy.org/eng/xwdt/
t1681026.htm](http://tl.chineseembassy.org/eng/xwdt/t1681026.htm). July 15(검색일: 2019.12.19)
- Kingsbury, Damien. 2018. "Timor-Leste's Challenged Political
Process: 2016-17." *Contemporary Southeast Asia* 40(1):
77-100.
- Leach, Michael. 2017. "Timor-Leste: A Return To Belligerent
Democracy?"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or/
timor-leste-return-belligerent-democracy](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or/timor-leste-return-belligerent-democracy). October 23(검색일:
2020.01.02)
- _____. 2020. "Back to the Future in Dili."
<https://insidestory.org.au/back-to-the-future-in-dili/>. February
26(검색일: 2020.04.04)
- Martins, Pedro and Miguel Gaspar. 2019. *Timor-Leste Economic
Report : Moving Beyond Uncertainty(English)*. Washington,
D.C. : World Bank Group. [http://documents.worldbank
.org/curated/en/207941557509771185/Timor-Leste-Economic
-Report-Moving-Beyond-Uncertainty](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07941557509771185/Timor-Leste-Economic-Report-Moving-Beyond-Uncertainty)(검색일: 2019.12.19)
- Massola, James. 2019. "Morrison Flies into A Storm in East Timor
Over Witness K Prosecution." [https://www.smh.com.au/
world/asia/morrison-flies-into-a-storm-in-east-timor-over-wit
ness-k-prosecution-20190828-p52lmc.html](https://www.smh.com.au/world/asia/morrison-flies-into-a-storm-in-east-timor-over-witness-k-prosecution-20190828-p52lmc.html). August 28(검색일:
2020.04.01)

- Murdoch, Lindsay. 2017. "East Timor'S Opposition Threaten Newly Sworn-In Minority Government." <https://www.smh.com.au/world/east-timors-opposition-threaten-newly-swornin-minority-government-20171007-gyw8cv.html>. October 7(검색일: 2019.12.15)
- Permanent Secretariat of Forum for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Portuguese-speaking Countries(Macao). 2019. "China Gives Timor Leste Supplies for Its Solders." <http://www.forumchinapl.org.mo/china-gives-timor-leste-supplies-for-its-soldiers/>. August 16(검색일: 2019.12.19)
- Presidência da República. 2019. "President of the Republic Veto State Budget 2019." <https://presidenciarepublica.tl/2019/01/president-of-the-republic-veto-state-budget-2019/?lang=en>. January 23(검색일: 2020.04.01)
- República Democrática de Timor-Leste. 2010. *Timor-Leste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1-2030*. Dili:Timor-Leste.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linked-documents/cobp-tim-2014-2016-sd-02.pdf>(검색일: 2019.12.15)
- Roll, Kate. 2018. "Street Level Bureaucrats and Post-conflict Policy-making: Corruption, Correctives, and the Rise of Veterans' Pensions in Timor-Leste." *Civil Wars* 20(2): 262-285.
- SBS News. 2019. "Jose Ramos-Horta Urges Australia to Drop Witness K, Whistleblower Charges." <https://www.sbs.com.au/news/jose-ramos-horta-urges-australia-to-drop-witness-k-whistleblower-charges> August 30(검색일: 2019.04.01)
- Seixas, Paul Castro, Nuno Canas Mendes and Nadine Lobner. 2019.

- “The ‘Readiness’ of Timor-Leste: Narratives about the Admission Procedure to ASEAN.”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38(2): 149-171.
- Shoesmith, Dennis. 2003. “Divided Leadership in a Semi-Presidential System.” *Asian Survey* 43(2): 232-251.
- Soriano, Andrea R. 2019. “Is Chinese Influence In Timor-Leste Cause for Concern?: China’s Interests and Timor’s Autonomy.” <https://www.themonsoonproject.org/chinese-influence-timor-leste-cause-concern/>. March 5(검색일: 2020.12.19.)
- Strating, Bec. 2017a. “Timor-Leste Runs the Risk of a Pyrrhic Victory.”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timor-leste-runs-risk-pyrrhic-victory>. January 11(검색일: 2019.12.19)
- _____. 2017b. “Timor-Leste’s Critical Window on ASEAN.”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timor-leste-critical-window-asean>. August 17(검색일: 2019.12.19)
- _____. 2018. “Timor and Australia: A New Chapter or a Stalemate?”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timor-and-australia-new-chapter-or-a-stalemate>. August 7(검색일: 2019.12.19)
- Talesco, Christian. 2016. “How East Timor’s Democracy Is Making it an Outcast.” <https://foreignpolicy.com/2016/05/10/how-east-timors-democracy-is-making-it-an-outcast-asean-southeast-asia/>. May 10(검색일: 2019.12.19.)
- Tatoli. 2020. “Budget Roadblock is Reducing Supplies of Basic Medications.” <http://www.tatoli.tl/en/2020/01/22/budget-roadblock-is-reducing-supplies-of-basic-medications/>. January 22 (검색일: 2019.12.19.)

- The Guardian. 2015. “Burma Rejects 'Unbalanced' Rohingya Remarks By Nobel Prize Winner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5/may/31/burma-rejects-unbalanced-rohingya-remarks-by-nobel-prize-winners>. May 31(검색일: 2020.01.20.)
- _____. 2019. “Witness K to Plead Guilty in Timor-Leste Spying Case But Lawyer to Fight Charges.”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9/aug/06/witness-k-to-plead-guilty-in-timor-leste-spying-case-but-lawyer-to-fight-charges>. August 6(검색일: 2020.04.01)
- Tobin, Meaghan. 2019. “Chinese Cash: Enough to Keep East Timor Out of ASEAN?” <https://www.scmp.com/week-asia/geopolitics/article/3021219/chinese-cash-enough-keep-east-timor-out-asean>. August 3(검색일: 2019.12.19)
- Wei, Sim Tze. 2019. “Old Chinese, New Chinese and the China Factor in Timor-Leste.” <https://www.thinkchina.sg/old-chinese-new-chinese-and-china-factor-timor-leste>. November 19(검색일: 2020.12.01.)
- World Bank. 2008. “Defining Heroes: Key Lessons from the Creation of Veterans Policy in Timor-Leste.” New York: World Bank
- _____. 2018. “Timor-Leste Country Profile” https://databank.worldbank.org/views/reports/reportwidget.aspx?Report_Name=CountryProfile&Id=b450fd57&tbar=y&dd=y&inf=n&zm=n&country=TLS(검색일: 2020.12.01.)

(2020.01.22. 투고, 2020.01.22. 심사, 2020.5.14. 게재확정)

<Abstract>

Timor-Leste 2019: The Internal and External Deadlock in the Politics of Timor-Leste

YOO Minji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s of Timor-Leste in 2019. First, it explains the internal political dynamics in the semi-presidential system over the Tasi Mane Project. The domestic politics of Timor-Leste has been instable for last two years mainly because of infight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This political deadlock has been intensified over the Tasi Mane Project, which is a mega-infrastructure project plans to create petroleum clusters along the southwest coast of Timor-Leste. Contrary to the opinion of the president, his political party and international advisors, the government pushed the project ahead and led the political situation to the stalemate. Under the semi-presidential system, political instability has become deepened, and the country does not seem to find an exit quickly.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explains the foreign politics of Timor-Leste based on the country's relation with Australia, China and ASEAN. The foreign politics of Timor-Leste in 2019 can be summarised by the diplomatic competition between Australia and China over Timor-Leste, and

Timor-Leste's efforts to cope with it. While Australia's diplomatic power over Timor-Leste is dominant, China's One Belt, One Road has arrived in Timor-Leste; hence, neighbouring countries such as Australia and ASEAN have been vigilant about China's involvement in the Tasi Mane Project. While two big powers were playing tug-of-war, Timor-Leste made efforts to break it through by gaining the maximum benefits between them and joining ASEAN. Finally, this paper closes with prospects Timor-Leste's 2020 and future political and social challenges.

Key Words: Timor-Leste, Tasi Mane Project, Timor Sea, Oil-dependent economy, Witness K, Belt and Road Initiative, ASEAN.

